씨앗을 심는 일

영화를 감상하다 보면 몇몇 영화들은 자신에게 질문을 쏟아내게 만들기도 한다. 나에게는 울지마 톤즈가 그랬다. 질문이 뇌리에 박혀 몇 날 며칠을 묻고 또 물었다. '꽃을 품어 씨앗을 심어 본 일이 있는가.' 내가 영화를 보는 내내 스스로 물었던 물음이었다. 내 신앙은 모태신앙이지만 나는 지금까지 줄곧 신앙 안에서의 체험보다는 세속 된 삶에서 얻은 이익과 이익으로부터 얻은 경험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보태어 보자면, 나의 삶이 대단하거나 긴 여정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모든 경험을 돌아보면 이익에서 가치를 찾는 삶이 스스로 품고 있는 꽃의 씨앗들을 어떻게 메마르게 하는지 너무 잘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확신 또한 이태석 신부님을 통해 느낀 조건 없는 마음과 사랑을 통해 얻게 된 나의 내적 체험이었다. 살아가면서 가치관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건 100%의 운이라고 생각하던 나에게 찾아온 이 내적 체험은 그렇게 나름 내 삶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던 순간 신부님과 관련된 여러 궁금증과 함께 영화를 감상하게 했다.

내가 이태석 신부님에게 느꼈던 궁금증은 사실 의심이기도 했던 것 같다. 나의 궁금증은 이러한 것이었다. '망설임, 두려움, 무서움 등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신부님의 결정과 행동에 전혀 영향이 없으셨던 걸까' 하는 궁금증이었다. 그런데 영화를 감상하면서 나의 궁금증은 그냥 한낱 부끄러운 의심 뿐이었다는걸 느끼게 되었다.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내가 한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을 넘어선 경이로움 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사실 나는 그 어떤 눈물도 흘리지 않았었다. 이유는 '감동 보다 앞선 감탄' 딱 그거 하나다. 어떤 대단하고 선한 실행력을 보고 있으면 감동 보다 앞선 감탄에 압도당해 그냥 흘리는 눈물보다 더한 감정이 내 내면까지 꽉 움켜쥐어 내 모든 가치관을 쥐고 흔들 때가 있다. 그리고 나는 이태석 신부님을 보면서 그런 압도를 느꼈다. 신부님이 품고 지내신 그 꽃의 역량이 톤즈 안에서 먼저 다가가 알아봐 주고, 치료하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이해해 주며 그렇게 따뜻한 씨앗을 곳곳에 심어 각자의 일생에 어떤 깊고 선한 흔적을 남겨주고 있다는 것을 온 내면으로 느낀 것을 말이다. 나는 우리 각자가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품고 키워내는 꽃 한송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면 누구도 따라 할 수 없고 따라 갈 수 없는 역량을 가진 향도, 색도, 모습도 다른 꽃을 가지고 있고 그 꽃은 각자가 지닌 개성과 재능

또한 다르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 꽃이 점점 시들어 그 씨앗마저 말라 버린다면 그 꽃의 모든 역량은 처음 가지고 있던 만큼의 개성도, 재능도,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영화 속 신부님의 모습을 보며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니라는걸 알게되었다. 시들어 버린 꽃도 말라버린 씨앗도 물을 주고, 비옥한 땅을 주고, 흙을 주고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 가지고 있던 역량보다 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걸 깨달았다.

톤즈 사람들은 신부님을 통해 따뜻함을 느끼고 희망을 노래하며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신부님은 톤즈의 모든 말라가는 꽃의 영혼에 물이 되어주고, 비옥한 땅이 되어주고, 흙이 되어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수많은 존재 이유의 뿌리가 되어 씨앗을 심어주고 계셨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아직 이렇게 묻는다 '나는 꽃을 품어 씨앗을 심어 본 일이 있는가.' 이런 모든 내적 체험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나의 꽃에 물과 땅과 흙이 되어준 이들에게 고마움을 이야기하며 늘 묻고 또 묻는다. 그리고 생각한다. 세상 사람 중 본연의 선함을 믿고 꽃을 피우는 사람들과 도움을 받아 다시 꽃을 피워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다 우연히 말라가는 꽃을 마주하게 된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선한 실행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런 선한 실행력이 당연한 세상이 다가온다고 믿으면서. 그래서 나는 영화 속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영화 첫 장면, 그 누구보다 활짝 웃으며 노래를 부르시던 신부님의 모습은 온기를 품은 지난날과 함께 마지막, 신부님 사진과 함께 연주하며 브람스 밴드의 행진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 말이다. 비극으로 가득 찼던, 그래서 절망이 잡초처럼 자라나던 곳에 신부님이 품은 꽃의 씨앗이 온기를 잔뜩 품어 곳곳에 꽃씨로 흩날려 지금도 여전히 신부님의 선한 실행력과 영향력을 통하여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지 않는 꽃의 일생을 사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다. 그리고 영화는 이태석 신부님 일생의 부분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신부님이 보여주신 선하고 조건 없는 마음이 이어진 일상과 그 일상을 통해 남겨진 신부님의 흔적은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태도의 방향성을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세상의 기준이 이익에 휘둘리고 악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신부님이 실행으로 직접 보여주신 모든 선의 흔적을 통해 세상 어느 곳에는 선의 실행을 이어 나가는 누군가가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분들로 인해 언젠가는 악함보다는 선함에 가까운 세상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꽃을 품어 씨앗을 심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싶다.